

[오피니언]

월/요/광/장

임내현



이번 독일 월드컵대회에서도 한국이 출전할 때마다 엄청난 수의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뜨거운 응원을 벌였다. 지난 13일 토고와의 경기에서는 전국적으로 200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인파가, 19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는 새벽 4시인데도 불구하고 8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선보인 한국 특유의 길거리응원은 이제 세계인의 문화 관광상품이 되었다. 주한 외국인과 근로자는 물론 일본 중국의 관광객이 다수 참석했다고 한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응원 광경들을 즐기게 되었고 상당수는 자신들도 직접 적극적으로 응원을 펼쳤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에 매료된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경기 대회 길거리 응원을 통해 한국인의 시민정신은 한층 성숙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진 친절, 질서, 청결 등 시민의식은 세계적 수준 이었다. 무엇보다도 단체 활동에서 일본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지적을 받거나 자

족면이 많았다. 필자는 2002년 월드컵 직후 중앙 어느 일간지의 칼럼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고양된 시민정신을 창작시켜 올림픽 이후에 보여준 전철을 끄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다행히 2002년 하일 월드컵때 상승되었던 시민의식은 수년이 지났으나 크게 후퇴하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이번 길거리응원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왔고 소매치기나 일부 무질서사례에 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당국에서 쓰레기 버릴 곳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안한 점과 그

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기간 종 길거리응원을 통해 범국민적 축제가 탄생되었고 이번 독일월드컵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져 같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이 축제는 우리 국민들이 서로 단합하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에는 축구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 여성들도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 길거리응원에 어머니나 누이까지 포함한 가족끼리 참여하여 가정화목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원끼리 또는 동네주민들끼리 함께 참여하여 직장화목이나 이웃화목을 증진한다. 심지어 낯설지만 같은 시군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이길 때는 서로 부둥켜안고 춤을 추며 열광의 도가니를 이루어 시민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문화가 창출된 것이다.

이제 길거리응원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다. 세계적 문화관광 상품이 되었고 우리 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며 우리 국민이 즐기고 서로 단결하는 축제가 되었다. 길거리응원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국민 파이팅!

<변호사>

경시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소간 열등감을 가졌던 것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시민정신의 성장은 부분적으로는 당시 꾸준히 추진되었던 월드컵시민문화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보다도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신바람이 나면 엄청난 일도 해내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이 발휘된 것이라고 본다.

스포츠경기를 통해 시민의식이 상당한 것은 서울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시민의식은 얼마나 가지 않아 흐지부지해진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도 큰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올림픽이나 지난번 대회처럼 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주시하는 데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세련되게 행동하는 선진 문화시민으로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길거리응원은 열정을 발산하고 서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평소의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축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고

우제길



현재 광주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수도 선정 이후 그 모양새를 갖추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문화수도건설은 이 지역의 문화의 특색, 그리고 뿌리와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체, 새로운 문화건설의 물질으로 그야말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1995년부터 그 서막을 올린 광주비엔날레는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문화수도 건설 속에 점점 한구석으로 밀리는 듯한 상황으로 인해 비엔날레가 갖는 가치 창조가 뇌색되어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광주는 ‘예향’으로 알려진 곳이다. 예향이라 함은 예술이 충만한 도시를 의미하기 이전에 예술을

호남문화의 뿌리와 근원 캐기

사랑하는 도시를 뜻한다. 즉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예술을 찾고 나름의 문화를 형성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옛부터 유래자로 이름이 났던 호남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은 확실히 높은 선비와 문학들을 많이 배출했고 가사문학의 본향으로 정신적 문화적 측면의 예향을 형성했다.

또한 국창 임방울 선생을 비롯한 판소리, 소치 허련을 위시로 한 남종화의 맥이 계속해서 이어진 곳으로 그러한 예술적 분위기는 오지호 선생, 양수아, 강용운 선생을 이어온 지난날의 근·현대미술의 중간적 매김에 의해 그 진정한 예술적 정신성의 흐름이 계속되었다.

지질학적으로 좋은 옥토,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을 등에 업은 호남 지방은 본격적으로 문명이 현대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생활의 미감과 예술적 견인이 높은 여건에서 타 지역과 중앙에서 많은 부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양질의 문화를 형성, 산재한

느끼고 실천하며 문화수도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쳇말로 느닷없이 짙어 있는 지금 우리의 광주를 묻어둔 채 그 위에 문화수도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발상이 너무나 우려되어, 오늘의 예향을 현실시점에서 되돌아보아야겠다. 동북아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슬로건을 외치기에 앞서 그 근원이나 원류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역사적·예술적·학술적인 면에서

세계로 향하는 문화도시의 확실한 정신적·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지역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문화로 거듭날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으로 본다. 과거 선조들로부터 양질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손으로서의 현재 봄답고 있는 예술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역할을 되짚어 본다.

또한 다음의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하고, 위의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이는 그야말로 죄악이 될 것이다.

<미술관장>

기 고

최진수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시대에 들어왔고, 이와 맞물려 출산력 저하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모든 언론이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대책을 앞 달려 내놓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책으로는 먼저 아이를 많이 낳자는 캠페인이다.

언뜻 생각하면, 출산 장려가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좋은 해법인 것 같으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모른다.

첫째, 넓지도 않은 한반도 남쪽에 한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가? 둘째, 인구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인가? 셋째, 근본적으로 아이를 많이 나면 당장 고령 사회의 취약점이 해소되는가?

출산장려가 고령社会의 대책인가?

세계의 인구밀도는 1km당 45명인데, 우리나라가 481명/km으로,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3위의 ‘인구 조밀국가’다. 인구를 늘리는 것은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며, 식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또다시 유발할 뿐이다. 한 세대도 지난 전에 출산 제한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뀐다면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민통제의 수단일 뿐인가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전 세계적인 인구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인구 증가의 추세에서 유럽이나 일본, 한국은 출산 장려책을 쓰고 열대지방 개발도상국에는 출산 제한 정책을 쓴다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윤리기준에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증가 정책을

펴는 유럽 국가들도 출산 장려는 다양한 인구 정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에 힘을 쓰기보다는 사회적인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인종, 타국적 노동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열기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과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고령사회의 폐해가 극복되는지 생각해보자. 고령사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은 9.1%이며 광주 7.1%, 전남 14.1%이었다. 특히 고성은 23.2%로 전국 최고의 고령사회가 되었다. 지금 낳은 아이가 생산인력이 되려면 앞으로 약 20여년을 기다려야 한다. 단순

히 생산인력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해산술적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가깝다.

수많은 사람들은 경쟁하고, 사교육비가 턱없이 들어가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쉽게 저출산의 경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社会의 대책은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세금의 대폭인상을 통한 사회복지 안전망의 강화, 외국인에 대한 쇄국적 가치관과 제도적 차별의 극복, 은퇴 노인의 생산 활동 참여 확대, 승진 지상주의적인 직장 문화의 선진화 등 여려 가지 부문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출적으로 인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애 많이 낳아라’식의 접근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광주·전남건강포럼대표>

부모님 공과금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 모색해 봤으면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고령 부모님의 주민세 같은 잡다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들었다.

특히 남해군은 세금 납부를 효도상품으로 개발해서 도시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상품을 구입,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노인들은 은행이나 관공서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 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농촌에 있는 부모

님을 직접 찾아가 범기 못하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는 당연히 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도시 자녀들이 농촌에 있는 부모님의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정경안·광주시 북구 누동동

시 설

축구로 하나 됐던 열정, 이젠 사회통합으로

독일 월드컵 축구에 출전했던 대표팀이 어제 돌아왔다. 조별리그 1승1무1패의 기록으로 아깝게 16강의 벽을 뛰친 못했지만 최선은 다한 결과인 만큼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는 세계 축구의 높은 수준과 각국 스타플레이어들의 눈부신 활약, 약소팀의 선전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축구는 아직도 숙제를 안고 있으며 그려야기에 4년 후 남아공 월드컵을 기약하는 ‘꿈’은 계속되는 것이다.

태극전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싸우는 동안 우리 국민은 또 한번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남녀노소가 개막전 이후 10여일 동안 일상의 귀심을 털어내고 행복감을 맛보며 초여름밤의 축제를 즐기 수 있었다. 전국에서 벌어진 붉은 물결의 응원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 모인 세계 곳곳에서 펼쳐졌으며 이는 또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다. 월드컵을 통해 보여준 우리의 국가의 에너지를 승화되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家計만 울린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총액한도를 제한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월 대비 절반으로 줄이라는 창구 지도에 나서면서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약처방이다. 그러나 은행권 대출창구를 직접 규제하는 반 시장적 카드는 긍정적 효과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며 미련이다. 반시장적 직접 규제는 외환위기 전의 관치(官治)금융 악몽마저 떠올리게 한다.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더라도 서민이나 중산층에까지 예기치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실수요자들은 당장 돈 줄이 막혀 집 장만하기가 어렵게 됐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으려는

無等鼓

사과는 남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숙명의 동물이다. 그러나 진실에서 우러난 사과가 쉽지만은 않다.

가장 아름다운 사과는 무엇일까. 빌리 브란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냉전이 절정이던 1970년 서독 총리 브란트는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2차대전 최대 피해국인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서독 총리의 방문을 차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전쟁 학살자 위령탑 앞에 서 브란트가 비에 젖은 땅에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독일을 대신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바로 전세계가 놀란 ‘빌리 브란트의 무릎’이다. 1560년 대 노예 무역의 첫 길을 튼 자신의 조상이자 노예 상인인 존 호킨스를 대신해 사과한 것이다.

진정한 사과는 이처럼 감동을 준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k@kwangju.co.kr



비아에서 열린 한 민족축제에 노예처럼

손이 죄송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2만5천여 명의 군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감

비아에서 열린 한 민족축제에 노예처럼 손이 죄송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2만5천여 명의 군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과거 영국의 식민

지였던 서아프리카 감동을 준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k@kwangju.co.kr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기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장	사 회 2 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18>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정 치 부	22				